

#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7월 3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3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 황은지 -

저는 신자들이 흔히 말하는 모태신자로 은혜와진리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믿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예배 드리며 성경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머니를 따라 성가대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3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의 적극적인 권유와 인도로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결신을 하고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만나 교제하게 된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지난 2021년 5월에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둘은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문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늦지 않은 때에 아이를 갖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소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몸에서 단백뇨, 혈뇨의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받은 결과 제 신장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의 담당 교수님 설명으로는 신장이 너무 작아서 제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장이 흔들려 다른 신체 기관을 누르며 압박하고, 이로 인해 단백뇨, 혈뇨와 같은 증상이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며 당장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차 결혼하여 아기를 갖게 된다면 합병증세로 인해 임신중독증을 겪을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임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임신 계획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 신장의 상태만이 아니었습니다. 단백뇨, 혈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던 혈액검사서 적혈구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철분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수치가 잡히는지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진단받은 저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들은 모두 앞으로 제가 아이를 갖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저는 고작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임신’, ‘임신중독증’과 같은 용어의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으며 그러한 질병이 틀림없이 발병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남편과 저는 결혼한 다음 임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제 신장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희 부부에게 가장 좋은 때에 잉태의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저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며 입장을 떠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입양이 어렵다면 자녀 없이 남편과 단둘이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제 마음가짐은 저의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서 기도해주던 친정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일과 크신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깨달아 반성하고 먼저 저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낮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예레미야 17:14)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 앉아 기도할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라파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임신계획을 뒤로 미룬 채 여느 때와 같이 신장의 상태와 적혈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2022년 여름, 7월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 몸에서 단백뇨, 혈뇨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적혈구 수치 또한 정상이 되어 더이상 어떠한 치료도, 약도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검사결과를 분석한 담당 교수님의 진단을 받고 진료실을 나설 때, 이러한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곧바로 저는 병원 복도 한 편에 서서 친정 엄마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려며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을 때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평안함이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저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92편 13절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저의 아이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그 아이가 하나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8월에, 저희 부부에게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 의지와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였더니 정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와 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것을 확인한 후 남편과 부둥켜안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그 후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는 열 달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임신기간 동안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직접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 아이와 함께 하는 모든 여정에 같이하셔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 또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태교 동화를 매일같이 읽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그 열 달 동안 저희 부부의 믿음 또한 더욱 굳세게 되었고, 지난 4월 5일 저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안’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빛어 주신 아들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저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만 쏟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편 127:3) 할렐루야!

옛그제 주일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주일날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가는 모습이며, 부모가 어린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광경은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귀중한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안’이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소망도 모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이사야 54:13).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시편 128:1~6). 할렐루야!



# 구역공과 제1권 (제2단원 : 죄지은 인간의 실상) (제7과) 바벨탑 사건

- 본문 : 창세기 11:1-9
- 요절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 찬송 : 505장(새찬송가 452장), 507장(새찬송가 455장)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고 복 주신대로,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많은 족속으로 퍼져 번성하게 되었습니다(창 10:1-32).

한 조상 노아의 후예였던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지에서 떠나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바벨론의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의인 노아의 후예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의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 홍수 심판의 생생한 기억이 사라지자 다시금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그들은 바벨이라는 탑을 쌓다가 도중에서 좌절되고 말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봄으로 신앙의 교훈을 얻겠습니다.

### 1.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모아 거대한 탑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평지였기 때문에 돌이나 진흙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번성케 된 그들이 그 은혜를 잊고 자기들끼리 힘을 규합하여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계획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 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잠 16:5)고 말씀하셨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가장 미워하시는 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들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우심을 바라는 대신에 도리어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조직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 2.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사 43:7).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시 115:1)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날 그들의 조상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의 교

훈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는 커녕 성과 대를 높이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도성 바벨론을 바라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단 4:30)고 말하는 순간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헤롯 왕을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행 12:23).

이같이 그들은 자신의 명예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 3.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고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넓은 땅 위에 편안하게 흠어져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삼상 15:22).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고 인간의 세력을 키워 나가려는 의도 하에 진행된 이 계획을 하나님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 4.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

그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다”(창 11:6)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성 쌓기를 그쳤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만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된 바벨탑 건설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악한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오히려 선을 이루사 당초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류가 온 땅에 편안하게 흠어져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